

시민권

* 10/26(월) 빌립보서 1-4장

머리말 1:1-11 인사말, 감사의 기도

본론① 1:12-2:30 소식과 교훈들

1:12-26 바울에 관한 소식

1:27-2:18 교회를 위한 가르침

2:19-30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소식

본론② 3장 경고와 따라야 할 모범

3:1-16 경고들(할례, 유대교, 핏대를 향하여)

3:17-21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

본론③ 4:1-20 권면과 감사

마무리 4:21-23

Before 줄치며 읽기

하나님 나라 <시민>의
덕목을 살펴보고
통독합니다.

After 묵상하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권면들

참고도서

신약개론(데이비드 A 드실바)
백주년기념성서주석 빌립보서
How 빌립보서, WBC 빌립보서

함께 syn-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함께>라는 접두어를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한다.

성도들은 은혜/피로움에

함께 참여하며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며 함께 기뻐/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들이다.

syn-koinonous 1:7

syn-koinonesabtes, 4:14

syn-psychoi, 2:2

syn-anthlountes, 1:27

synchairete, 2:17-18

synergon, syn-stratioten

2:25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보통의 아비-자녀가 아니라 친구요, 동역관계였습니다(빌1:5).

선교할 때나 간혀있을 때나, 늘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빌1:5, 2:25-30, 4:10-20, 고후11:8-9).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빈곤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려는

바울의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고후8:1-4, 9:1-5).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정>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1:3-4, 7-11, 12-16, 2:17-19, 2:28, 4:10, 14, 19)

바울은 성령과 함께 빌립보에 첫발을 딛었습니다(행16:6-10).

루디아의 손길로 교회의 쓸 것을 공급받고(16:14-15),

열심 있는 일꾼들과 동역하게 되었습니다(빌4:3).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을 관리에게 고발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행16:21)”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투옥됩니다(행16:22).

기도와 찬송 중에 옥문이 열렸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살렸습니다.

간수의 일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행16:25-34).

이 모든 일 뒤에야 두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37절).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고난을 피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빌1:12)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3:20)”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초기 로마는 주변국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제국이 견고해 지면서 본토인 이외에는 주요 식민지, 공로자, 유력자에게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거대도시는 아니었지만 항구와 주요 가도가 연결된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요 전투에 승전한 로마가 도시를 확장하며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소유권, 땅의 양도, 세금, 지역 행정과 법, 지위 등에서 본토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는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국가 유지를 위해 기근이나 재난 시 구호를 조달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구한 것들이었습니다.
물품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 형식을 통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통 신들에게 국가의 안녕을 빌곤 했습니다.
더 나은 내세와 수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행하는 제의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종교 활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으로서의 종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단지 종교 영역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일상과 책임, 의무와 권리로 간주되던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기독교인들이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한다며 강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행16:2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1:27).
한글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민으로서 politeuesthe’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 받던 성도들에게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디오 크리소스툼,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세계 시민적 덕>에 대하여
공동의 관심, 같은 의견과 행동, 공동의 결정, 한 마음을 꼽았습니다(civic unity).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2:2-4).”
하나님 나라 시민의 덕목과 로마 시민의 덕목은 별개가 아닙니다(1:27).
그리스도, 바울, 성도들이 이미 그러한 덕목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1-11, 14-16, 4:2-4/ 2:5-11/ 3:2-21/ 2:19-30, 3:17).

그리스도인의 덕은 세상에도 덕스러운 것입니다(3:8).
성도 간에 ‘함께syn-’하지 못하는 일들은 세상에서조차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2:3, 4:2).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 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에 속한 <도시>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일입니다(politeuma, 3:20).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2:14-15).

통독의 맥 잡기

1:1-11 인사

친밀한 사랑과 우정의 인사말, 감사의 기도

1:12-2:30 소식과 교훈들

1:12-26 바울에 관한 소식

매임과 복음의 진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1:27-2:18 교회를 위한 가르침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시민으로서 politeuesthe)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19-30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소식

3장 경고와 따라야 할 모범

3:1-21 경고들

반대자들 : 유대주의적 선교사들

이전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

여전히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본론③ 4:1-20 권면과 감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마무리 4:21-23